

# 보성, 우수 인재 육성으로 교육 경쟁력 입증

## 서울대·KAIST·GIST 등 명문대 71명 합격 쾌거 대학 진학률 93.6%...교육발전특구 지역 등 성과

2026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 보성군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와 우수학과 진학률이 31.8%에 달하는 등 교육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지역 고교는 서울대 1명, 의·치·약·한의대 4명, KAIST·GIST 등 특성화대학 4명, 교육대 1명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등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에 총 71

명이 합격했다. 고교 3학년 졸업생 238명 중 231명이 대학에 진학해 전체 진학률이 93.6%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대입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성과는 군이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고·별교고·예당고 등과 협력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학교장 간담회, 지역민 주체 교육발전 포럼, 장학사업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지정에 이어, 보성고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선정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연간 최대 3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자체·고교·대학이 연계된 보성형 교육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인 스마트 농업 기반 인재 양성, 차(茶) 산업 연계 교육, 농수산·문화관광 특화 교육 등을 통해 계열별 진로 탐색과 방과후 심화 학습이 강화되며 상위권 대학 진학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으로 보성고는

지난해부터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자사고·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심화·창의 학습,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장 재량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이다”며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보성군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지역 고교와 협력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26학년도 대학 진학에서 명문대·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학년도 7.6%에서 31.8%로 7년 만에 4배 이상 상승했다. 사진은 보성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고장, 보성 탐방대 현장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월동 범위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보성·고흥·여수·광양·하동 등 남해안벨트로 확대되며,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흑두루미 무리가 순천만습지 하늘을 날고 있다.

##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순천만 중심 광역 서식지 형성

### 흑두루미 전년비 33% ↑...남해안권역 생태축 확대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 월동 범위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보성·고흥·여수·광양·하동 등 남해안벨트로 확대되며, 광역 서식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흑두루미가 행정 경계를 넘어 남해안권역을 따라 ‘연결과 상생’의 생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2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두루미는 순천만 8100여마리, 여자만 1000여마리 등 국내에서 총 9700여마리가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만 흑두루미 개체수는 습지복

원과 서식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남해안 권역의 월동·이동 네트워크 강화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순천만과 여자만은 갯벌·습지·농경지가 어우러져 먹이활동과 휴식에 적합한 핵심 월동 거점으로 평가되며,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창공을 가르 는 흑두루미는 하늘에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내는 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협

력을 통해 상생과 통합의 가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을 한층 더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는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매년 전국 주요 습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국내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철새 현황을 파악해 철새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양, 아동 중증질환자 진료 교통비 지원

### 타 지역 진료 연간 최대 50만원...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는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동 중증질환자에 대한 타 지역 진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암·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2026년 기준 2008년생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진료 1회당 수도권 지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 10만원, 수도권 외 지역(광양·여수·순천시 제외) 7만원이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chak)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교통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진료 1회당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신청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진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양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97-4049)로 문의하면 된다. 타 지역 진료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58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아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며,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동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교통비 지원을 통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



장흥군은 지난 26일부터 용산면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마을좌담회를 개최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 장흥, 2026년 상반기 마을좌담회 돌입

### 내달 6일까지 56개 마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

장흥군은 지난 26일부터 용산면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마을좌담회를 개최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용산면 좌담회는 김성 군수와 용산면장, 각 마을 주민 등 총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면 어서·운주·금곡·남포·풍길·송전·인암·용인 등 8개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좌담회에서는 농·수산·어업 지원, 소등성 돌레길 야간경관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용배수로 및 도로 정비 등 생활불편 및 지역발전 관련 현안 등이 다수 건의됐다.

군은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관계 부서 검토 후 조치 방향을 협의했으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

는 군정계획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담당자가 건의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의자 및 마을 이장 임회 하에 검토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건의사항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상반기 마을좌담회는 2월 6일까지 6개 읍·면 56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그 외 읍·면은 군정 일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는 군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 여수, 중대사고 예방 총력

### 대형 사업장 등 집중 점검

여수시는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50억원 이상 대형 발주 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식·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지도 및 컨설팅 중심의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구 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정 부시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한파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현구 부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와 관계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곡성물, 최대 40% 할인 특별전 운영

### 내달 13일까지...고객 참여형 이벤트도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물 곡성물에서 곡성물 북 가독 최대 40% 할인 특별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전은 다음달 1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임업 업체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곡성물 전 상품을 대상으

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명절 선물로 활용하기 좋은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 명절 특별전과 연계해 카카오톡 친구 추가, 구매 후기 참여, 전 상품 무료 배송 등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고객 유입과

재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물은 2023년 9월 개장 이후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 25억원을 돌파했으며, 회원 수 3만6000여명, 누적 방문자 수 154만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 민관협력 캠페인 ‘곡성물 아이사랑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공공 소평물의 기능 확장에 기여해 왔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 고흥, 쾌적한 관광·생활환경 구축 총력

###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랑 13억 투입

고흥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관광·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285동을 대상으로 지붕 철거 및 개랑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경

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속선·연흥도·우도 등 주요 관광도서와 시가지 도로변 건축물을 중심으로 정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과 시가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

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개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정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